

냉동고 결로 점검표

가스켓 부르기 전에 매장 환경과 설비 5단계부터 자가 점검해 보세요

1. 매장 환경 측정

결로가 보이는 시점에 매장 온습도부터 적어요.
상대습도 60% 초과면 환경 조정이 가스켓 교체보다 먼저예요.

측정 값 (점검 시점 기준)

매장 상대습도	_____	%
매장 실내 온도	_____	°C
외부 온도·강수 여부	_____	

기기별 설정 온도

스탠드 냉동고	_____	°C
아크 냉동고 (아이스크림)	_____	°C
오픈 케이스 (유제품·도시락)	_____	°C

법정 기준 (참고)

냉동 -18°C↓ / 냉장 0~10°C

식약처 기준은 냉동 -18°C 이하, 냉장 0~10°C예요. -25°C 이하로 더 낮추면 콤프레셔 과부하로 외부 공기 흡입력이 증가해서 오히려 성에가 가속되니까 적정 유지가 답이에요.

2. 결로 5단계 자가 점검

사설 부르기 전에 5가지를 순서대로 짚어요.

근본 원인이 잡혀야 가스켓 교체로 효과를 봐요.

□ 1단계 매장 상대습도 60% 초과 여부

온습도계 수치 확인. 60% 넘으면 출입문 닫고 시스템 에어컨 제습 모드 가동해요. 장마철 외부 80~90%면 대용량 제습기 추가 배치하세요.

□ 2단계 가스켓 지폐 끼우기 테스트

1천 원권 한 장 문틈에 끼우고 닫은 뒤 당겨봐요. 저항 없이 빠지면 자석 약화·고무 경화로 노후예요. 육안 찢어짐·곰팡이도 같이 점검하세요.

□ 3단계 내부 설정 온도 적정 여부

식약처 기준 냉동 -18°C 이하, 냉장 0~10°C예요. -25°C로 더 낮추면 오히려 흡입력 증가로 성애가 가속되니까 적정 유지하세요.

□ 4단계 출입문 개폐·매장 환기 상태

덥다고 출입문 열어둔 채 영업하면 외부 습기가 끝없이 유입돼서 결로가 재생산돼요. 하절기에는 개폐 최소화가 원칙이에요.

□ 5단계 에어컨 토출 방향 점검

차가운 직바람이 쇼케이스 유리를 직접 타격하면 유리 표면 온도가 이슬점 이하로 떨어져서 결로가 두 배 심해져요. 토출구를 사람 동선 쪽으로 돌리세요.

💡 응급 조치로 쇼케이스 유리에 습기가 차서 시야 가릴 때, 주방용 중성세제(푼푼) 한두 방울을 헝겊에 묻혀 유리에 얇게 펴 발라요. 계면활성제가 물방울 응결을 방해해서 시야가 투명해져요.

3. 자가 교체 vs 출장 의사결정

가스켓 노후 확인되고 본인 자산이면 자가 교체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본사 자산이면 신고 절차부터 가야 비용 분쟁이 없어요.

2026년 6월 시세 (참고)

가스켓 부품 (자가 교체)	19,300~40,000원
출장 단순 교체	30,000~300,000원 (평균 85,000원)
컴프레서 교체 (중정비)	220,000~450,000원

우리 매장 의사결정

자산 구분 (본사 / 점주 / 무상임대)

예상 처리 방식

☐ 자가 교체 도구 준비

새 가스켓·드라이버·헤어드라이어·따뜻한 물 60°C 한 대야예요.

☐ 자가 교체 5단계

전원 차단 → 기존 가스켓 모서리 잡고 분리 → 새 가스켓 60°C 물에 5분 담그기 → 네 모서리 프레임 홈에 눌러 끼우기 → 가장자리에서 중앙으로 밀어 넣기 (15~30분 소요)

☐ 자가 교체 불가 신호

가스켓 교체·환기 다 해도 컴프레서 굉음·내부 온도 -18°C 미달이면 냉매 누설·모터 손상이예요.
220~450만 원 중정비를 의뢰하세요.

4. 자산 구분 + 신고 절차

수리 비용 부담은 자산 소유권에 따라 달라요.

본사 자산은 임의 사설 부르면 정산에서 비용 청구가 거부돼요.

□ **본사 자산 (워크인 클러·다단식 오픈케이스·본사 지급 스탠드)**

OFC·FC에게 1차 신고하고 본사 제휴 AS망으로 기사 배정 의뢰가 원칙이에요. 임의 사설 호출 시 비용 청구 거부돼요.

□ **점주 자산 (자비 구매 소형 쇼케이스·무인편의점 자체 세팅)**

자가 교체 또는 사설 출장 자유롭게 선택해요. 비용 전액 점주 부담이지만 자가 교체로 2만 원에 끝낼 수 있어요.

□ **도매업체 무상 임대 (아이스크림 냉동고)**

약관에 청소·성에 제거·가스켓 훼손 같은 일상 관리 의무가 점주 부담으로 명시된 경우가 다수예요. 약관 책임 소재 조항을 직접 확인하세요.

□ **점주 관리 소홀 입증 시 본사 자산도 점주 부담**

칼·송곳으로 성에 깨다 냉매관 관통·과적재로 모터 손상은 사용자 귀책사유로 점주 부담이에요. 성에는 콜라병 곡면으로 톡톡 두드려 분리하세요.

💡 하절기 AS 폭주로 기사 방문이 열흘 지연되는 경우 본사·제조사의 식품 손실 전액 보상 강제 규정은 없어요. 이상 징후 시 즉시 보조 설비로 상품 이관이 유일한 손실 방어책이에요.

SAAI STORE LETTER

© 2026 SAAI

이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해요. 개별 매장의 법률·세무·노무 자문이 아니므로 매장 규모·근무 형태·계약 조건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고, 본 자료를 활용한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점주 본인에게 있어요. 중요한 결정은 자격을 갖춘 전문가(공인노무사·세무사·변호사 등)와 상의하세요.